

# 가정 맥락에서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과 어머니의 반응인식\*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al Situations and Mothers' Responses  
in the Home Context\*

부성숙(Sungsook Pu)<sup>1)</sup>

김희진(Heejin Kim)<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al situations and mothers' responses toward their children in the home context. Participants were 78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ving Seoul, Korea.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did not distinguish social-conventional situations from moral situations, but they clearly distinguished social-conventional and moral situations from personal situations. Mothers' reported that they would make indirect responses to children's behaviors in moral situations to highlight intrinsic consequences such as violating others' rights and happiness. In contrast, they said that they would make direct responses such as mentioning rules and manners in social-conventional situations. Mothers supported their children's choices in personal situations unless the situations were dangerous or detrimental to children's health.

**Key Words** : 초사회화(meta-socialization),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 I. 서 론

유아의 사회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인지, 사고 등의 내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은화 · 김영옥, 2001; Laupa &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경북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sook Pu,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buk College, #630, Hyuchon 2-dong, Yeongju, Kyungbuk 750-712, Korea  
E-mail : kbsense@hanmail.net

Turiel, 1993; Melson, 1989; Mills & Grusec, 1988).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요인은 경험을 소화하는 인지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아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사회적 상황(situation)'에 대한 유아의 지식 또는 개념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은 '사회화 경험에 대한 유아의 생각(ideas), 사회적 표현(social representation), 도식(scripts)'이라고 정의되는 초사회화(metasocialization) 요소 중의 하나로서, 유아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칙이 포함된 상황(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이해(개념)를 말한다(Melson, 1989). 그리고 특정 사회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유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탐구해야만 한다.

사회적 영역 이론(domain theory)에 따르면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된 도덕적 영역, 사회-관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 내에서 조직된다고 하였다(Turiel, 1983, 1989; Windmiller, Lambert, & Turiel, 1980). 도덕적(moral) 영역은 생명의 가치, 정의,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의 제한을 받는 영역을 말하고, 사회-관습적(social-conventional) 영역은 특정 사회 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균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으로 남녀의 행동방식, 옷 입는 방식, 인사하는 방식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Turiel, 1978). 개인적(personal) 영역은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제를 벗어나 개인의 결정과 판단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옷, 음식, 친구, 놀이 활동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Nucci, 1981).

이러한 사회적 영역의 특성에 대한 유아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0년간 이루어졌던 연구들(장금순, 1988; Killen & Smetana, 1999; Nucci, 1981; Nucci & Turiel, 1978; Nucci & Weber, 1995; Song, Smetana, & Kim, 1987)은 주로 상황별 판단을 비교하는 준거판단(criterion judgement : 허용성, 심각성, 권위의존성, 개인선택수용성, 결정지위, 일반성)과 그 판단에 대한 정당화(justification)를 통해 유아의 개념 구분을 검토하였고, 대부분 연령별 차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3-4세 유아도 이미 도덕적 위반 상황을 매우 심각하고,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 권위나 규칙과 독립해서 잘못된 것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견했고, 사회-관습적 위반 상황은 덜 심각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고 권위나 규칙에 의존하는 것으로 다루었다(Smetana, 1981; Smetana & Braeges, 1990).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규제를 받는 상황(도덕적, 사회-관습적)과 달리 개인적 선택 상황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행위로서 보다는 개인적인 일, 행위자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일로 이해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3가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구분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llen & Smetana, 1999; Tisak, 1993; Tisak & Turiel, 1984; Yau & Smetana, 2003).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개념 구분에 국한되어 있었고, 가정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반응하였다는 연구(Nucci & Weber, 1995; Siegel & Cowen, 1984; Smetana, 1989) 정도가 있을 뿐, 준거판단과 정당화를 통해 개념 구분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은 유아에게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상황의 경험을 최초로 제공하는 맥락이고, 가정 맥락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최초의

개념 구분이 제도화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구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 내에서의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은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규칙과 유아교육기관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규칙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Clark-Stewart, 1991), 가정 맥락에서 유아의 개념 구분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구분 양상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 구분을 준거판단 및 정당화를 통해 살펴보고, 연령별 차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관계는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맺는 관계이다.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개념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행동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유아에게 압력 또는 단호함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유아 역시 어머니에게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순종과 실패, 반항 등을 통해 어머니의 행동을 수정 또는 강화하고, 어머니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형성해간다(Mills & Grusec, 1988). 즉, 유아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권위자인 어머니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간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머니들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도덕, 사회-관습, 개인의 3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반응하였고(Nucci & Weber, 1995; Smetana,

1989), 자녀의 돕지 않는 행동(친사회화의 실패)과 다른 유아를 밀쳐버리는 것(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구별하였으며, 유아를 훈련할 때 도덕적 상황과 사회-관습적 상황을 구분하였다(Siegel & Cowen, 1984). 또한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해 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어머니들은 자녀의 비행에 있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동(거짓말, 훔치기, 때리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기술 및 추론(reasoning)의 방법(아이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도록 자극)을 사용한다고 인식하였고, 규칙을 어기거나 도움 안주기, 나누지 않기 등 친사회화의 실패에 대해서는 규칙을 설명하거나 감정이입의 훈련을 한다고 인식하였다(Grusec & Kuczynski, 1981). 그리고 개인적 선택 상황에 대해서는 선택의 제안, 현상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인식하였고(Nucci & Smetana, 1996; Nucci & Weber, 1995), 유아의 행동을 인식할 때 나이를 고려함으로써(Dix & Grusec, 1985) 어머니의 반응인식이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반응인식은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유아와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아 자신이 직접 몸담아 살고 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잘 인식되어 있는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다(Melson, 1989). 따라서 유아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인 가정에서 권위자인 어머니와의 구체적 경험 즉,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들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이

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정보는 유아의 사회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서의 유아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인식 관련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개념 구분 및 연령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서의 유아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검토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 구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 구분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P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78명(3세 23명, 4세 28명, 5세 27명)과 78명 유아의 어머니 중 연구를 허락한 어머니 61명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8( $SD=3.27$ )세이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대부분(78.7%)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직업은 대부분 전업주부(77.0%)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 및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가정에서의 사회적 상황을 나타내는 삽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질문, 어머니의 반응인식 측정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 1) 사회적 상황

가정에서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표 1>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구분	인원수(%)	구분	인원수(%)
연령	30세~34세	직업	전업주부
	35세~39세		맞벌이
	40세~44세		총계
	45세~50세		총계
	총계		총계
학력	고졸	자녀수	1명
	2년제 대학졸		2명
	4년제 대학졸		3명
	대학원졸 이상		4명
	총계		총계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인터뷰의 상황별 내용 구성은 Nucci와 Weber(1995), Yau와 Smetana(2003)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Nucci와 Weber(1995)가 개발하여 사용한 상황의 내용은 만 3세-4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인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거나 성인이 원하지 않는 도덕적 상황 2가지(때리기, 훔치기), 사회-관습적 상황 2가지(저녁식사 시간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기, 과자 받고 감사의 인사 안하기), 개인적 상황 3가지(엄마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색깔의 옷 입기, 매력적이지 않은 아줌마에게 키스하는 것 거절하기, 엄마가 싫어하는 극놀이 하기)를 제시 하였는데, 이 중 3가지(옷 색깔 선택, 감사의 인사 안하기, 식사 중 돌

아다니기)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Yau와 Smetana(2003)가 개발하여 유아학급에서 사용한 내용 중 4가지(때리기, 놀리기, 놀이친구 선택, 놀이 활동 선택)와 선행연구(Nucci, 1981; Smetana, 1984)에서 이미 도덕적 상황과 사회-관습적 상황으로 사용된 내용 2가지(빼앗기,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 안하기)를 가정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예비조사에서 23명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실시해 본 결과 가정에서의 상황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유아교육 전문가에게도 상황별 내용을 검토 받은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의 내용은 도덕적 상황 3가지

〈표 2〉 사회적 상황

상 황	정 의	내 용
도덕적 (moral) 상황	신체적 심리적 상해 입 히기, 불공평(부정행위), 타인의 권리 박탈	때리기 민희(주인공)가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물컵을 쏟는 바람에 그림이 망가지게 되었다. 민희는 무척 화가 났고, 친구를 정말로 때리고 싶다.
		빼앗기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민희가 원하는 인형을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다. 민희는 친구의 인형을 정말로 빼어 가지고 싶다.
		놀리기 민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아이(매우 뚱뚱하고 지저분하고 머리모양이 이상한)의 모습을 보고 놀리고 싶다.
사회-관습적 (social- conventional) 상황	사회적 질서, 조직의 규 칙 위반/정해진 시간, 정 해진 장소에서 작업이나 놀이 활동을 안 함	감사의 인사 안하기 옆집 아주머니가 민희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셨다. 민희는 과자를 받기 전에 아주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민희는 식탁에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다.
		놀잇감 치우지 않기 거실에서 여러 가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놀이가 끝난 후 민희는 놀잇감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 (personal) 상황	개인적인 선호나 자신의 신체관리, privacy, 친구 나 활동에 대한 선택권 과 관련된 것	옷 색깔 선택 두 가지 색깔의 옷(초록색/노란색)이 있다. 민희는 정말로 초록색 옷을 입고 싶다.
		놀이친구 선택 여기 두 명(A/B)의 친구가 있다. 민희는 정말로 A를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싶다.
		놀이 활동 선택 퍼즐놀이와 동화책 보기 중에서 민희는 정말로 동화책을 읽고 싶다.

(때리기, 빼앗기, 놀리기), 사회-관습적 상황 3가지(감사의 인사 안하기,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기, 놀잇감 치우지 않기), 개인적 상황 3가지(옷 색깔 선택, 놀이 친구 선택, 놀이 활동 선택)로 총 9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판단 및 정당화)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질문 및 코딩은 선행연구(Killen & Smetana, 1999; Nucci & Weber, 1995, Smetana, 1981; Smetana & Braeges, 1990)를 기초로 Yau와 Smetana(2003)가 개발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유아가 3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상황별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제시 순서를 무작위로 정한 후 모든

유아가 동일한 순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각각의 이야기에 대해 7가지의 질문(허용성, 심각성, 정당화, 권위 독립성, 개인적 선택 수용성, 결정지위, 일반성의 7가지 평가영역에 대한 질문)을 정해진 순서대로 질문하였고,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정해진 코딩 숫자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코딩 숫자, 평가 영역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정당화를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표 4>에 제시된 정당화 범주에 기록한 후 숫자를 부여하였다. 정당화 범주의 코딩은 상호 배타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당화 범주에 기록이 되면 1, 기록이 안 되면 0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결정지위는 행위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위한 것으로, 부모, 유아, 부모와 유아, 기타의 4개

<표 3> 사회적 상황 대한 인터뷰 질문 및 코딩숫자, 평가영역

순서	질문내용	코딩숫자	평가영역
1	“주인공이 한 행동은 옳으니? 옳지 않니?”	옳다 ⇒ 0 옳지 않다 ⇒ 1	허용성 (permissibility)
2	“그 행동은 전혀 나쁘지 않다/ 조금 나쁘다/ 매우 나쁘다 중 어느 것이니?”	전혀 나쁘지 않다 ⇒ 1 조금 나쁘다 ⇒ 2 매우 나쁘다 ⇒ 3	심각성 (severity)
3	“왜?” [정당화 범주(<표 4>참조) 8개에 코딩]	범주에 기록 안 됨 ⇒ 0 범주에 기록 ⇒ 1	정당화 (justification)
4	“만일 어머니가 ‘안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되니?”	권위에 의존 ⇒ 0 권위와 독립 ⇒ 1	권위독립성 (authority independent)
5	“만일 주인공이 정말로 원한다면 해도 되니?”	수용 ⇒ 0 거부 ⇒ 1	개인적 선택 수용성 (acceptance of personal choice)
6	“주인공이 취해야 될 행동은 누가 결정하니?” [부모, 유아, 부모와 유아, 기타 중 선택]	선택 안 됨 ⇒ 0 선택 ⇒ 1	결정지위 (decision locus)
7	· 이야기는 다른 곳이 아닌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한 것임을 분명히 한 후에 다시 질문을 한다. “유치원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으니? 옳지 않니?”	상황에 따라 상대적 ⇒ 0 일반성 ⇒ 1	일반성 (generalizability)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택이 되면 1, 선택이 안 되면 0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어머니의 반응인식

가정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유아에게 제시하였던 가정에서의 상황별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이야기에 대해 “집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반응 인식)”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반응인식 범주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어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Nucci와 Weber (1995)의 반응 범주를 연구자가 변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반응인식 범주는 <표 5>와 같다. 이 범주는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찰이 아닌 인터뷰를 실시한 본 연구에서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Nucci & Smetana, 1996)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코딩은 어머니

<표 4> 유아의 정당화 범주

범 주	정 의	예
본질적 결과	신체적, 심리적 상처, 상해, 손실 등 타인의 복지(행복)에 영향을 주는 행동/ 부정적 영향/ 부당함	“그 애가 다치게 되니까” “그 아이를 슬프게 하니까” “그 아이를 울게 만드니까”
차별 회피, 권위 금지	위반자에게 고통스런 벌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으로 봄/ 권위자(부모)나 규준에 의한 금지	“엄마한테 혼나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니까” “엄마한테 벌 받으니까”
관습적인 행동	예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호소/ 문화적, 지역적 규준이나 기대	“엄마는 어른이니까 반말하면 안돼요” “밥은 수저로 먹어야 돼요”
개인적 선호	개인의 선택이나 주관적인 선호를 반영하는 행동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이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적, 실제적인(심각성) 것의 혼합	심각(prudential)하거나 실제적(practical)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것으로 인정	“나쁜 것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결과의 심각성 (prudential)	결과적으로 유아 자신의 건강, 안전, 평안과 직결되는 행동	“손에 끈적끈적한 것이 달라붙으니까” “손의 병균이 몸속에 들어가 아프게 될거예요” “더러워요”
실제적	실제적인(분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마루는 더러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돼요”
구분되지 않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나쁘거나 잘못된 행동	“그냥 나빠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표 5〉 어머니의 반응 인식 범주

응답 범주	정 의	실 예
타인에게 영향	타인에게 부당하거나 해를 끼치게 될 행동(상황)을 목격했을 때의 언급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친구가 다치게 돼”
동기/합리성	규칙이나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 위반자에게 그(그녀)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요구	“실수로 그런거야. 망친 그림은 또 그리면 되잖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유가 뭐야?”
타인의 입장 고려에 대한 요구	위반자는 그 자신이 동일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입장을 고려해봐야 될 것을 언급	“누군가가 너의 장난감을 뺏어 갔다면 너의 기분이 어땠겠니?”
사회적 조직적 규범	무질서/일탈 언급 규칙 언급	장소를 벗어난 행동, 이상한 행동에 대한 언급 또는 어지럽히기, 무질서, 혼돈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언급 행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언급
회상시켜주기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규칙의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회상하도록 언급	“방이 아주 지저분하구나” “가족 모두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식탁을 떠나서는 안된다!”
개인적 통제/개인의 행복	선택권 제공 특권에 대한 언급 위험언급/선택거절	유아에게 행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제시 유아 자신만이 결정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유아 특권에 관한 일임을 알려주기 개인의 건강, 안전, 해로움과 같은 행위의 직접적 영향으로 신체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문제임을 언급/부모가 유아의 선택권 주장에 대해 거부하거나 유아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하도록 제안
기타	명령/협박/체벌/구분되지 않음	규칙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어떤 행동을 해라 또는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언급/협박/체벌/구분되지 않음

의 응답을 반응인식 범주에 기록한 후 숫자를 부여하였는데, 반응인식 범주에 기록이 되면 1, 기록이 안 되면 0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코딩은 X<sup>2</sup>검증 분석을 위해 상호 배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머니의 응답이 여러 개의 반응인식 범주에 해당될 경우 어머니에게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인터뷰 도구의 적절성, 인터뷰 소요시간의 적

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3세, 4세, 5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2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사회적 상황을 나타낸 삽화 중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유아들의 내용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다. 인터뷰 내용의 기록은 처음에 유아와 어머니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여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였으나, 유아와 어머니의 답변 내용이 짧고 단순하여 연구 후반부에는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였다.

2차 예비연구는 만 3세, 4세, 5세 유아 30명과



2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와 인터뷰를 시작할 때 유아와 친숙해지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예: 이름, 반, 아침에 먹은 음식)을 했고, 나이를 물어 본 후 그림을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남아에게는 남아가 주인공인 그림을 제시하고, 여아에게는 여아가 주인공인 그림을 제시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유아 1인당 20분 정도였고, 1차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한 삽화의 내용이나 인터뷰 질문 및 코딩범주는 별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적절하였다.

어머니와의 인터뷰는 유아 편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연구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고, 연구를 허락한 어머니들은 유치원 행사(교재, 교구 전시회)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와의 인터뷰는 유치원의 교실에서 이루어졌고,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어머니 1인당 40분 정도였고, 1차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한 삽화의 그림이나 반응인식 코딩 범주는 별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적절하였다.

##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5년 9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P유치원의 만 3세반, 4세반, 5세반의 유아 78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2명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6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유아와의 인터뷰는 학급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시청각실, 도서실)에서 실시하였고, 2차 예비연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하였으며 답변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유아 1인당 10-15분 정도였다. 어머니와의 인터뷰는 11월 초부터 이루어지는 2학기 학부모 면담 기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인터

뷰의 모든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였고,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어머니 1인당 30-40분 정도였다.

## 3) 연구 보조자 훈련

유아와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자료의 코딩을 위하여 예비연구의 자료를 통해 2명의 연구 보조자를 훈련시켰다. 연구 보조자들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유치원 교사 경력이 각각 4년, 5년이며 현재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1차 만남을 통하여 인터뷰의 내용과 절차, 정당화 및 반응인식 범주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예비연구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유아의 정당화 범주와 어머니의 반응인식 범주에 대한 코딩 훈련을 실시하였다. 코딩 결과, 유아의 정당화는 60%, 어머니의 반응 인식은 62%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2차 만남에서는 또 다른 인터뷰 기록 자료로 정당화 범주와 어머니의 반응인식 범주에 코딩한 결과, 유아의 정당화는 84%, 어머니의 반응 인식은 85%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 Ⅲ. 연구 결과

## 1.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

가정에서의 사회적(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허용성에 있어서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 $\chi^2_{(2)}=598.55, p<.001$ )가 나타나,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적 상황

〈표 6〉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

구분	상황			구분	상황						
	도덕	사회-관습	개인		도덕	사회-관습	개인				
허용성	허용	1( 0.4)	1( 0.4)	212(90.6)	권위 독립성	허용	6( 2.6)	16( 6.8)	184(78.6)		
	비허용	233(99.6)	233(99.6)	22( 9.4)		비허용	228(97.4)	218(93.2)	50(21.4)		
	계	234(100)	234(100)	234(100)		계	234(100)	234(100)	234(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598.55, p<.001			x <sup>2</sup> 검증			x <sup>2</sup> (2)=412.29, p<.001	
심각성	전혀 나쁘지 않다	2( 0.9)	1( 0.4)	209(89.3)	개인 선택 수용성	수용	10( 4.3)	21( 9.0)	199(85.0)		
	조금 나쁘다	26(11.1)	83(35.5)	17( 7.3)		거부	224(95.7)	213(91.0)	35(15.0)		
	매우 나쁘다	206(88.0)	150(64.1)	8( 3.4)		계	234(100)	234(100)	234(100)		
	계	234(100)	234(100)	234(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436.66, p<.001		
x <sup>2</sup> 검증			x <sup>2</sup> (4)=638.91, p<.001			결정 지위	부모	56(23.9)	101(43.2)	53(22.6)	
본질적 결과	143(61.1)	15( 6.4)	7( 3.0)	유아	159(67.9)		129(55.1)	175(74.8)			
차별회피/권위금지	19( 8.1)	77(32.9)	28(12.0)	부모/유아	2( 0.9)		3( 1.3)	3( 1.3)			
관습적 행동	27(11.5)	46(19.7)	5( 2.1)	기타	17( 7.3)		1( 0.4)	3( 1.3)			
정당화	개인적 선호	1( 0.4)	1( 0.4)	150(64.1)	계	234(100)	234(100)	234(100)			
	혼합	0( 0.0)	0( 0.0)	38(16.2)	x <sup>2</sup> 검증			x <sup>2</sup> (6)=46.69, p<.001			
	결과심각성	13( 5.6)	25(10.7)	1( 0.4)	허용	0( 0.0)	0( 0.0)	199(85.0)			
	실제성	7( 3.0)	35(15.0)	0( 0.0)	비허용	234(100)	234(100)	35(15.0)			
	구분불가능	24(10.3)	35(15.0)	5( 2.1)	계	234(100)	234(100)	234(100)			
	계	234(100)	234(100)	234(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555.46, p<.001			
x <sup>2</sup> 검증			x <sup>2</sup> (14)=752.18, p<.001			일반성					

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성에 있어서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x<sup>2</sup>(4)=638.91, p<.001)가 나타나, 도덕적 상황에 대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쁘다' 또는 '조금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며,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정당화에 있어서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x<sup>2</sup>(14)=752.18, p<.001)가 나타나, 도덕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는 본질적 결과 범주,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는 처벌회피/권위금지, 관습적 행동 범주, 개인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는 개인적 선호, 혼합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 독립성에 있어서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

이(x<sup>2</sup>(2)=412.29, p<.001)가 나타나,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 권위와 독립하여 대체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선택 가능성의 수용 여부에 있어서 상황별 유의미한 차이(x<sup>2</sup>(2)=436.66, p<.001)가 나타나,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대부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지위에 있어서 상황별 유의미한 차이(x<sup>2</sup>(6)=46.69, p<.001)가 나타나, 도덕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 보다 유아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 유아가 많았지만,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

한 결정권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성에 있어서 상황별 유의미한 차이( $\chi^2_{(2)}=555.46, p<.001$ )가 나타나,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별 유아의 개념 차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연령별 유아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허용성에 있어서, 개인적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아는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 $\chi^2_{(2)}=26.73, p<.001$ )가 나타나 3세 유아가 4, 5세 유아에 비해 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심각성에 있어서 도덕적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4)}=16.70, p<.01$ )가 나타나, 5세 유아가 3세, 4세 유아에 비해 '조금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적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아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4)}=24.09, p<.001$ )가 나타나, 3세 유아들이 4, 5세 유아보다 더 나쁘게 판단하였다.

정당화에 있어서 도덕적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기 때문(본질적 결과)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였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12)}=27.67, p<.01$ )가 나타나, 4세, 5세 유아가 3세 유아에 비해 본질적 결과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3세 유아가 4세, 5세 유아에 비해 처벌회피/권위

금지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고, 3세, 4세 유아가 5세 유아에 비해 구분 불가능의 범주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다.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엄마가 화내거나 혼내기(처벌회피/권위금지), 규칙이나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관습적 행동)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였고,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 $\chi^2_{(12)}=25.98, p<.05$ )가 나타나, 3세 유아가 4세, 5세 유아에 비해 '처벌회피/권위금지', '구분 불가능'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한 반면 4세, 5세 유아는 3세 유아에 비해 '관습적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4세 유아가 '결과의 심각성' 범주, 5세 유아가 '실제성' 범주에 비교적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개인적 선호)에 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혼합)에 옳은 행동이라고 하였고,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 $\chi^2_{(12)}=44.17, p<.001$ )가 나타나, 3세 유아보다는 4, 5세 유아가 '개인적 선호'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고, 3세, 4세 유아보다는 5세 유아가 '혼합'에 대한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3세, 4세 유아가 5세 유아에 비해 '처벌회피/권위금지', '구분 불가능'의 범주에 대한 정당화를 많이 하였다.

권위 독립성에 있어서 도덕적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유아는 권위와 독립하여(상관없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2)}=14.73, p<.01$ )가 나타나, 4세, 5세 유아 모두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3세 유아 일부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아가 권위와 독립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2)}=28.17, p<.01$ )가 나타나, 3세 유아가 4세, 5세 유아에 비해 더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상

〈표 7〉 연령별 유아의 개념 차이

구분	상황	도덕			사회·관습			개인		
		3세 (n=23)	4세 (n=28)	5세 (n=27)	3세 (n=23)	4세 (n=28)	5세 (n=27)	3세 (n=23)	4세 (n=28)	5세 (n=27)
허용성	허용	1( 1.4)	0( 0.0)	0( 0.0)	1( 1.4)	0( 0.0)	0( 0.0)	52(75.4)	81(96.4)	79(97.5)
	비허용	68(98.6)	84(100)	81(100)	68(98.6)	84(100)	81(100)	17(24.6)	3( 3.6)	2( 2.5)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2.40, p>.05			x <sup>2</sup> (2)=2.40, p>.05			x <sup>2</sup> (2)=26.73, p<.001		
심각성	전혀 나쁘지않다	1( 1.4)	1( 1.2)	0( 0.0)	1( 1.4)	0( 0.0)	0( 0.0)	53(76.8)	78(92.9)	78(96.3)
	조금 나쁘다	6( 8.7)	13(15.5)	7( 8.6)	18(26.1)	23(27.4)	42(51.9)	8(11.6)	6( 7.1)	3( 3.7)
	매우 나쁘다	62(89.9)	70(83.3)	74(91.4)	50(72.5)	61(72.6)	39(48.1)	8(11.6)	0( 0.0)	0( 0.0)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30(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4)=3.67, p>.05			x <sup>2</sup> (4)=16.70, p<.01			x <sup>2</sup> (4)=24.09, p<.001			
정당화	본질적결과	37(53.6)	53(63.1)	53(65.4)	1( 1.4)	6( 7.1)	8( 9.9)	6( 8.7)	0( 0.0)	1( 1.2)
	차별회피/권위금지	11(15.9)	5( 6.0)	3( 3.7)	26(37.7)	25(29.8)	26(32.1)	13(18.8)	11(13.1)	4( 4.9)
	관습적행동	7(10.1)	11(13.1)	9(11.1)	8(11.6)	22(26.2)	16(19.8)	5( 7.2)	0( 0.0)	0( 0.0)
	개인적선호	1( 1.4)	0( 0.0)	0( 0.0)	1( 1.4)	0( 0.0)	0( 0.0)	35(50.7)	62(73.8)	53(65.4)
	혼합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10.1)	9(10.7)	22(27.2)
	결과심각성	2( 2.9)	4( 4.8)	7( 8.6)	5( 7.2)	13(15.5)	7( 8.6)	1( 1.4)	0( 0.0)	0( 0.0)
	실제성	0( 0.0)	1( 1.2)	6( 7.4)	9(13.0)	11(13.1)	15(18.5)	0( 0.0)	0( 0.0)	0( 0.0)
	구분불가능	11(15.9)	10(11.9)	3( 3.7)	19(27.5)	7( 8.3)	9(11.1)	2( 2.9)	2( 2.4)	1( 1.2)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12)=27.67, p<.01			x <sup>2</sup> (12)=25.98, p<.05			x <sup>2</sup> (12)=44.17, p<.001			
권위 독립성	허용	6( 8.7)	0( 0.0)	0( 0.0)	14(20.3)	2( 2.4)	0( 0.0)	53(76.8)	66(78.6)	65(80.2)
	비허용	63(91.3)	84(100)	81(100)	55(79.7)	82(97.6)	81(100)	16(23.2)	18(21.4)	16(19.8)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14.73, p<.01			x <sup>2</sup> (2)=28.17, p<.001			x <sup>2</sup> (2)=0.26, p>.05		
개인 선택 수용성	수용	9(13.0)	1( 1.2)	0( 0.0)	14(20.3)	2( 2.4)	5( 6.2)	56(81.2)	72(85.7)	71(87.7)
	거부	60(87.0)	83(98.8)	81(100)	55(79.7)	82(97.6)	76(93.8)	13(18.8)	12(14.3)	10(12.3)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18.54, p<.001			x <sup>2</sup> (2)=16.06, p<.001			x <sup>2</sup> (2)=1.28, p>.05		
결정 지위	부모	17(24.6)	20(23.8)	19(23.5)	39(56.5)	31(36.9)	31(38.3)	25(36.2)	15(17.9)	13(16.0)
	유아	46(66.7)	60(71.4)	53(65.4)	30(43.5)	52(61.9)	47(58.0)	42(60.9)	67(79.8)	66(81.5)
	부모/유아	1( 1.4)	1( 1.2)	0( 0.0)	0( 0.0)	1( 1.2)	2( 2.5)	0( 0.0)	1( 1.2)	2( 2.5)
	기타	5( 7.2)	3( 3.6)	9(11.1)	0( 0.0)	0( 0.0)	1( 1.2)	2( 2.9)	1( 1.2)	0( 0.0)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6)=4.58, p>.05			x <sup>2</sup> (6)=10.26, p>.05			x <sup>2</sup> (6)=14.81, p<.05			
일반성	허용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7(82.6)	73(86.9)	69(85.2)
	비허용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12(17.4)	11(13.1)	12(14.8)
	계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69(100)	84(100)	81(100)
	x <sup>2</sup> 검증	x <sup>2</sup> (2)=0.00			x <sup>2</sup> (2)=0.00			x <sup>2</sup> (2)=0.55, p>.05		

황에서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의 선택 가능성의 수용 여부에 있어서 도덕적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유아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2)}=18.54, p<.001$ )가 나타나, 3세 유아보다 4세, 5세 유아에 비해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유아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 $\chi^2_{(2)}=16.06, p<.001$ )가 나타나, 3세 유아보다 4세, 5세 유아에 비해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서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정지위에 있어서는 개인적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적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전반적으로 유아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

는데,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 $\chi^2_{(6)}=14.81, p<.001$ )가 나타나, 4세, 5세 유아에 비해 3세 유아보다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일반성에 있어서는 모든 상황에서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3.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인식

어머니들에게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서 유아들에게 실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보았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 $\chi^2_{(20)}=771.24, p<.001$ )가 나타나, 도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해로움/정당함(공평함)에 대한 평가, 타

<표 8> 어머니의 반응인식

구분	판단	도덕			사회-관습			개인			전체		
		3세 (n=21)	4세 (n=20)	5세 (n=20)	3세 (n=21)	4세 (n=20)	5세 (n=20)	3세 (n=21)	4세 (n=20)	5세 (n=20)	도덕	사회- 관습	개인
타인에게 영향	해로움/정당함 평가	25(39.7)	26(43.3)	10(16.7)	1(1.6)	0(0.0)	0(0.0)	2(3.2)	0(0.0)	0(0.0)	61(33.3)	1(0.5)	2(1.1)
	동기/합리성	11(17.5)	7(11.7)	19(31.7)	0(0.0)	4(6.7)	2(3.3)	0(0.0)	0(0.0)	0(0.0)	37(20.2)	6(3.3)	0(0.0)
	타인일정고려요구	15(23.8)	15(25.0)	18(30.0)	1(1.6)	0(0.0)	2(3.3)	1(1.6)	0(0.0)	0(0.0)	48(26.2)	3(1.6)	1(0.5)
	소계	51(81.0)	48(80.0)	47(78.4)	2(3.2)	4(6.7)	4(6.6)	3(4.8)	0(0.0)	0(0.0)	146(79.7)	10(5.4)	3(1.6)
사회조직적 규범	무질서/일탈언급	0(0.0)	0(0.0)	0(0.0)	1(1.6)	0(0.0)	1(1.7)	0(0.0)	0(0.0)	0(0.0)	0(0.0)	2(1.1)	0(0.0)
	규칙(예의)언급	1(1.6)	1(1.7)	4(6.7)	26(41.3)	19(31.7)	26(43.3)	0(0.0)	1(1.7)	0(0.0)	6(3.3)	71(38.8)	1(0.5)
	회상시켜주기	1(1.6)	0(0.0)	0(0.0)	2(3.2)	0(0.0)	0(0.0)	0(0.0)	0(0.0)	0(0.0)	1(0.5)	2(1.1)	0(0.0)
	소계	2(3.2)	1(1.7)	4(6.7)	29(46.1)	19(31.7)	27(45.0)	0(0.0)	1(1.7)	0(0.0)	7(3.8)	75(41.0)	1(0.5)
개인적 통제/행복	선택권제공/선택지저	0(0.0)	0(0.0)	0(0.0)	3(4.8)	9(15.0)	0(0.0)	51(81.0)	48(80.0)	45(75.0)	0(0.0)	12(6.6)	144(78.7)
	특권언급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8.3)	0(0.0)	0(0.0)	5(2.7)
	위협언급/선택 거절	1(1.6)	0(0.0)	0(0.0)	0(0.0)	1(1.7)	2(3.3)	9(14.3)	11(18.3)	10(16.7)	1(0.5)	3(1.6)	30(16.4)
	소계	1(1.6)	0(0.0)	0(0.0)	3(4.8)	10(16.7)	2(3.3)	60(95.3)	60(98.3)	60(100)	1(0.5)	15(8.2)	179(97.8)
기타	명령/협박/체벌	1(1.6)	7(11.7)	8(13.3)	19(30.2)	21(35.0)	21(35.0)	0(0.0)	0(0.0)	0(0.0)	16(8.7)	61(33.3)	0(0.0)
	구분 불가능	8(12.7)	4(6.7)	1(1.7)	10(15.9)	6(10.0)	6(10.0)	0(0.0)	0(0.0)	0(0.0)	13(7.1)	22(12.0)	0(0.0)
	소계	9(14.3)	11(18.4)	9(15.0)	29(46.1)	27(45.0)	27(45.0)	0(0.0)	0(0.0)	0(0.0)	29(15.8)	83(45.3)	0(0.0)
총계		63(100)	60(100)	60(100)	63(100)	60(100)	60(100)	63(100)	60(100)	60(100)	69(100)	69(100)	69(100)
$\chi^2$ 검증		$\chi^2_{(14)}=32.31, p<.01$			$\chi^2_{(18)}=28.42, p>.05$			$\chi^2_{(18)}=18.48, p<.05$			$\chi^2_{(20)}=771.24, p<.001$		

인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언급,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고 합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동기/합리성)으로 나타났다.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과 예의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하였고, 명령/협박/체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유아의 선택 주장에 대해 지지한다고 하였는데, “위험하지 않거나 너무 심하지 않으면, 건강에 영향이 없으면,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가 아니면, 해야 할 일(학습지 등)을 모두 한 경우라면”이라는 조건 하에서 유아가 선택한 것을 허용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도덕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chi^2_{(14)}=32.31, p<.01$ )가 나타나, 3세, 4세 어머니는 해로움/정당함에 대한 평가의 반응 빈도가 높았고, 5세 어머니는 동기/합리성, 타인 입장 고려 요구의 반응 빈도가 높았다. 명령/협박/체벌의 반응 빈도는 3세 어머니에 비해 4세, 5세 어머니에게 높게 나타났고, 3세, 4세 어머니들이 5세 어머니에 비해 구분 불가능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개인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chi^2_{(18)}=18.48, p<.05$ )가 나타나, 5세 어머니에 비해 3세, 4세 어머니가 선택권 제공/선택권지지의 반응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위험언급/선택 거절의 반응 빈도는 5세 어머니에게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가정 맥락에서의 유아 초사회화를 규명해내기 위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개념과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대부분의 준거판단(허용성, 권위독립성, 개인선택수용성, 일반성)에서 사회-관습적 위반을 도덕적 위반만큼 나쁜 것으로 개념화하여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개인적 상황은 뚜렷이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성, 정당화 준거에서는 세 가지 상황을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유아학급 맥락에서 심각성 준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준거에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내의 연구결과(박영신, 2001, 2006; 최보가·송미화, 1996; Song et al., 1987)와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준거에서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한 외국의 연구결과(Smetana & Braeges, 1990; Yau & Smetana, 2003)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을 구분해내지 못한 것은 사회-관습적 문제를 도덕화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문화는 권위에 대한 존중감, 개인보다는 집단의 우위 등을 크게 강조하는 특성이 있고(Rohner & Pettengil, 1985), 사회적 지위, 신분, 연령 등에 적합한 역할과 상호간의 예의 존중을 통한 사회적 조화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Song et al., 1987). 이러한 문화에서 사회-관습적 규범으로 규정되는 상황들은 그 성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및 행동적 제약을 가하게 되어 도덕적인 성격을 띄게 되고(송명자, 1992), 이 때문에 사회-관습적 문제의 도덕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들이 사회-관습적 위반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 위반 행동을 했을 때와 유사한 정도의 제재를 받은 사회적 경험 때문일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회-관습적 위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할 때, 위반 행동이 왜 나쁜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 협박, 체벌과 같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였거나, 유아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 결과의 심각함을 강조함으로써 유아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 영역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지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유아들은 위반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이고 심각한 것일수록 도덕적 상황으로 개념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Arsenio, 1988; Tisak & Turiel, 1988) 사회-관습적 상황을 도덕적 상황으로 개념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규제를 받는 영역(도덕적, 사회-관습적)과 개인적 선택 영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llen과 Smetana(1999), Nucci(1981), Tisak(1993), Yau와 Smetana(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를 부모, 교사, 다른 구성원에 의해 규제받는 도덕적, 사회-관습적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음식, 놀이친구, 놀이 활동에 대한 선택을 개인적 선택 사항으로 개념화 하였고, 개인적 영역은 행위 결과가 행위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고 행위자 자신이 결정해야 하며 규칙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고(Killen & Smetana, 1999) 정확히 판단하였다.

정당화 준거에서, 도덕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는 '본질적 결과' 범주,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는 '처벌회피/권위금지', '관습적 행동' 범주, 개인적 상황에 대한 정당화는 '개인적 선호', '혼합'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Hollos, Leis, & Turiel, 1986; Nucci, 1981; Song 등, 1987; Tisak & Turiel, 1984) 결과와 일치하며, 도덕적 상황을 판단할

때 타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고, 사회-관습적 상황을 판단할 때 권위, 사회 관습이나 사회 조직적 규범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적 상황을 판단할 때는 개인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다.

결정지위 준거에서, 도덕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 보다 유아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 유아가 많았지만,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관습적 상황에서는 가정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부모 권위를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인 경향은 어린 유아들이 나이 많은 유아에 비해 부모 권위에 의존하여 판단하였고, 개념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판단 이유를 설명하는 데 미흡하였다.

어린 유아들일수록 부모 권위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은 결정지위, 정당화에서 나타났다. 결정지위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유아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적 선택 상황의 경우 3세 유아들이 4세, 5세 유아에 비해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정당화의 경우는 3가지 모든 상황에서 3세 유아가 4세, 5세 유아에 비해 '처벌회피/권위금지' 범주에 대한 정당화를 많이 함으로써 어린 유아들이 부모 권위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린 유아들은 개념적 구분에 있어서 나이 많은 유아에 비해 도덕적, 사회-관습적 위반에 대해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어린 유

아가 도덕, 사회-관습 위반에 허용적이고, 심각하지 않게 판단한 것은, 어머니가 자녀 행동을 혼란하고 평가할 때 나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선행연구(Dix & Grusec, 1985; Smetana, 1989)에서 어머니들은 어린 유아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유아의 위반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관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야단치지 않았음으로써,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인식할 때 나이를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나이 많은 유아들은 도덕적, 사회-관습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고, 특히 5세 유아는 심각성에 있어서 도덕적 상황과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명확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도덕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타인에게 미칠 해로움과 행위의 정당함에 대한 평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언급,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고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 등 간접적인 반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직접적인 규제(예 : “때리지마, 다쳐”)를 하였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매우 형벌적인 반응을 하였으며, 강력하고 단호한 기술(신체적 처벌, 특권 박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홍용희, 2004; Grusec & Kuczynski, 1981; Nucci & Weber, 1995)의 결과와 달랐다. 이런 간접적 반응은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김혜경 · 김희진, 2001)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나, 실제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반응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이 즉각적,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보다, 즉각적 반응 이후 자녀에게 행위의 잘못을 알려주고, 기준을 설명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의 행동을 즉시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어머니들은 장기간 내면화되는 것을 추구하여 추론의 방법이나 설명과 같은 간접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Grusec & Kuczynski, 1981). 따라서 도덕적 위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실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찰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관습적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과 예의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하였고, 명령/협박/체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습적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규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직접적인 메시지(예 : 규칙언급, 명령)를 사용하였다는 Nucci와 Weber(1995)의 연구, 유아의 비행 행동에 대해서 신체적 처벌, 특권 박탈, 그리고 유아에게 적합한 행동을 만든 뒤 법칙이나 기준을 설명하였다는 Grusec와 Kuczynski(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버릇을 잘못 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을 강요하고 체벌을 가함으로써 유아의 행동을 강하게 규제하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행동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유아에게 규칙이나 예의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비난을 많이 할수록 상호작용 질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어머니가 부정적이며 간섭적일 경우 유아의 반응이 낮아져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 선행연구(김혜경 · 김희진, 2001; Landy, Smith, Miller-Loncar, & Swank, 1998)의 결과를 볼 때 유아의 사회적 상황에 개념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반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규칙언급, 명령, 협박, 체벌을 통해서 는 유아에게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관습적 위반에 대해 부모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유아의 선택 주장에 대해 지지한다고 하였는데, “위험하지 않거나 너무 심하지 않으면, 건강에 영향이 없으면,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가 아니면, 해야 할 일(학습지 등)을 모두 한 경우라면”이라는 조건 하에서 유아의 선택한 것을 허용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ucci와 Weber(1995), Yamada(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안전, 유아의 일과(routine), 가족규칙에 있어서는 규제하였지만, 옷, 음식, 놀이활동, 친구에 대한 결정권에 있어서는 유아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아의 개인적 선택과 판단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개인적 선택 문제에 있어 잠재적인 해로움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친구 선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지나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여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였고, 올바르게 못한 언어나 행동을 하는 친구를 사귀므로써 자신의 자녀가 영향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인식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도덕적 상황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해로움/정당함에 대한 평가의 반응 빈도가 높았고,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동기/합리성, 타인 입장 고려 요구의 반응, 명령/협박/체벌의 반응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Dix & Grusec, 1985; Smetana, 1989)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해

로움/정당함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한 것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반면, 높은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5세 정도면 이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 해로움/정당함에 대한 평가 보다 행위의 동기나 합리성, 타인의 입장 고려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명령/협박/체벌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적 상황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선택권 제공/선택권지지의 반응을 많이 하였고, 높은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위협언급/선택거절의 반응을 많이 하였다. 이는 어린 유아에게는 아직 어리기에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아의 선택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것이고,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개인의 욕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Kopp, 1982), 개인적 문제의 사회-관습적 측면을 강조하여 거절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 어릴수록 이기적이거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흥미만을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타인을 고려하게 되고(Yamada, 2004), 나이가 들수록 자율적인 자기 통제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Kopp, 1982).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첫째,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관습적 상황을 도덕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결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유아의 인지적 추론 과정과 사회-관습적 문제를 도덕화하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권 유아들이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

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한 구분한 반면, 한국의 유아들만이 도덕과 사회-관습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미흡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권위자인 어머니와의 구체적 경험이 유아의 초사회화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이 사회-관습 위반에 대해 일방적인 규칙언급, 명령, 협박, 체벌과 같은 강력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유아들로 하여금 사회-관습적 상황을 도덕적 상황만큼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사회-관습 위반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력한 방식의 제재는 유아에게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의 초사회화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반응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관습적 위반에 대해 부모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반응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어머니의 반응을 관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어머니의 반응인식은 실제 행동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어머니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혜경 · 김희진(2001).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전략과 질. *아동학회지*, 22(2), 77-90.
- 박영신(2001). 한국 유아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2), 83-104.
- 박영신(2006). 유아들의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9(4), 39-53.
- 송명자(1992). 도덕판단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 영역구분모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1(1), 65-80.
- 이은화 · 김영옥(2001). *유아사회교육*. 양서원.
- 장금순(1988). 5세 유아의 위반 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 송미화(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4), 49-62.
- 홍용희(2004). 비교문화적으로 본 한국과 미국 부모들의 유아도덕교육. *유아교육연구*, 24(1), 259-292.
- Arsenio, W. F. (1988).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Clarke-Stewart, K. A. (1991). A home is not a school : The effects of child care on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47, 105-123.
- Dix, T. H.,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ren. In Sigel, I. E.(Ed). *Parental belief system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 Erlbaum.
- Grusec, J. E., & Kuczynski, L. (1981). Direction of effect in socialization : A comparison of the parent's vs. the child's behavior as determinant of disciplinary techniqu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9.
- Hollos, M., Leis, P. E., & Turiel, E. (1986). Social reasoning in Ij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igerian commun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352-374.
- Killen, M., & Smetana, J. G. (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 Development*, 70(2), 486-501.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020-1029.
- Landy, S. A., Smith, K. E., Miller-Loncar, C. L., & Swank, P. R. (1998). The relation of change in maternal interactive styles to the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of full-term and pre-term children. *Child Development*, 69, 105-123.
- Laupa, M., & Turiel, E. (1993). Children's concepts of authority and social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 191-197.
- Melson, G. F. (1989). The development of metasocialization :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41-266.
- Mills, R. S. L., & Grusec, J. E. (1988). Soci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S. W. Duck(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 Theory, research and inventions*(pp. 177-209). New York : John Willy & Sons.
- Nucci, L.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 & Smetana, J. G. (1996). Mothers' concepts of young children's areas of personal freedom. *Child Development*, 67, 1870-1886.
- Nucci, L.,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al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Nucci, L., & Weber, E. K. (1995). Social interactions in the home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66, 1438-1452.
- Rohner, R. P., & Pettengi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iegel, M., & Cowen, J. (1984). Appraisals of intervention : The mother's versus the culprit'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valuations of disciplinary techniques. *Child Development*, 55, 1760-1766.
- Smetana, J. 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metana, J. G. (1984). Toddler's social interactions regarding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1767-1776.
- Smetana, J. G. (1989). Toddlers' social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in the home.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499-508.
- Smetana, J. G., & Brages, J. L. (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oral and conventional judgem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6(3), 329-346.
-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77-582.
- Tisak, M. S.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ement of moral and personal events involving physical harm and property damage. *Merrill-Palmer Quarterly*, 39(3), 375-390.
- Tisak, M. 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Tisak, M. 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s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352-357.
- Turiel, E. (1978). Social regulations and domains of social concepts. In W. Damon(Series Ed).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Vol.1 : *Social cogni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89). Domain-specific social judgements and

- domain ambigu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5(1), 89-114.
- Windmiller, M., Lambert, N., & Turiel, E. (1980). *Moral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Allyn & Bacon.
- Yamada, H. (2004). Japanese mother's views of young children's areas of personal discretion. *Child Development*, 75(1), 164-179.
- Yau, J., & Smetana, J. G. (2003). Conceptions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3), 647-658.

---

2007년 8월 30일 투고 : 2007년 11월 20일 채택